

멍게가 되지 않기 위해

윤여준(독립기획사)

Sweet Dream

장나라의 <Sweet Dream> 뮤직비디오¹⁾에는 자동으로 이를 닦아주는, 이른바 양치 기계가 나온다. 적당한 위치에 얼굴만 대고 있으면 알아서 치약도 짜주고 칫솔질도 해주는 이 신통방통 양치 기계는 2002년 음원 발매 이후 꾸준히 아침의 침대와 밤의 쇼파 위 사람들에게 오랜 로망으로 남아있다. 로망으로 남아있다고 하니 마치 양치의 기술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루 세 번의 귀찮음을 해소해줄 발전은 전동칫솔부터 시작하여, 자동 치약 디스펜서, 물고만 있으면 양치가 끝나는 스마트 양치 기계²⁾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3초 만에 양치가 끝난다는 마우스피스 모양의 스마트 양치 기계는 앱 연동으로 살균 및 개인별 맞춤 설정까지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반짝 등장 후 다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아무리 스마트시대라 하지만 밤새 충전하여 앱을 켜고 개인 모드를 설정한 후, 3초간 물고 있으면 되는 자동 양치 기계는 너무 빨랐다. 아니 너무 똑똑했다.



1) 장나라 <Sweet Dream>, 2002



2) 스마트 양치 기계

멍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에 의하면 기계와 인간은 상호적으로 진화해왔다. 인간은 행위자가 되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기계 역시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스마트시대라고 불리는 동시대, 기계와 인간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맺고 있는데, 인간은 더 똑똑한 생활을 위해 많은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기계는 이 기술을 갖추어 인간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똑똑한 환경을 제공한다.

기계는 인간에 의해 더 작은 몸집으로 더 큰 효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하나의 본체는 더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스티글러(Bernard Stiegler)에 의하면 인간은 기계를 더욱 똑똑하게 발전시키며, 태생적인 기억과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에 자신의 기억과 기능을 외재화시킨다.³⁾ 그리고, 점차 기계에 의지하여 주도권과 주체성을 상실해간다. 그렇게 기계는 날로 똑똑해지고, 인간은 날로 똑똑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행히 인간만 똑똑함에서 퇴행하는 건 아니다. 멍게도 그렇다. 멍게는 스스로 멍청해지기를 선택한다. 멍게는 뇌를 비롯한 후각, 근육, 신경 등 고등기관을 갖추어 직접 헤엄쳐 먹이를 찾던 어린 날을 지나, 어른이 되면 바위에 자신의 몸을 붙이고, 물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영양분만을 그 자리에서 섭취하며 살아간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흐르는 물을 통해 영양분도 들어오는데, 칼로리 소모가 높은 뇌를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 효율을 위해 스스로 뇌도 소화시킨다. 한곳에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 어른이 된 멍게도, 기계에 의지한 인간도.

3) 베르나르 스티글러, 『자동화 사회1: 알고리즘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김지현, 박성우, 조형준(역), 새물결, 2019, p.83.

(부사) 고집을 부려 구태어

‘굳이?’라는 물음의 답엔 민망함이 묻는다. 나름의 이유는 언제나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하자니 궁색한 꼴이 되기 십상이기에. 스마트 양치 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스마트 기계들 역시 충분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다. 바쁜 출근 시간, 양치 시간을 줄여 2분 57초의 시간을 버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인지, 매일 같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멋진 플레이팅을 위해 각각의 음식에 알맞은 바닥 면을 연출하는 스마트 접시⁴⁾는 분명 미니멀라이프와 멋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유튜브를 보며 손톱을 깎다 살점을 잘라본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손톱을 깎아주는



4) 스마트 접시

스마트 손톱깎이⁵⁾의 등장에 환호를 외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앗, 한껏 민망해진다.

그와 반대로, ‘굳이?’라는 물음 자체가 민망할 때가 있다. ‘굳이’가 목적이 되어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 구태여 행했을 경우, 질문은 의미를 잃는다. 《This is Smart Cutter!》는 스마트 손톱깎이가 나온 이 시대에 굳이 혼자서 깎기도 힘든 둔탁하고 무거운 손톱깎이를 제시한다. <PPC-01> 하단의 삼각기둥은 별다른 기능이 없다. 그저 손톱깎이를 더 무겁고 더 들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WMC-05>는 손톱을 깎아내는 작은 작두를 제외한 공간을 구태여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혼자 사용할 수도 없다. 손가락 두 개로 할 수 있는 일이 두 사람의 두 팔을 사용하고서 겨우 가능해진다. 굳이 만드는 것이 《This is Smart Cutter!》의 목적이다. 질문은 민망해진다.



5) 스마트 손톱깎이

손톱깎이로 손톱 깎기

손톱을 깎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굴러다니는 전단지를 챙기고 서랍 속 손톱깎이를 찾는다. 전단지가 없다면 지난주에 본 전시의 리플렛이어도 좋다. 한쪽 손의 손톱을 먼저 깎고, 같은 동작을 손을 바꾸어 반복한다. 10개의 손톱을 모두 깎았다면, 손톱 파편들을 종이 위에 모은 후 휴지통에 쓸어내려 버린다.

혹은 이렇게 진행된다. 5개의 손톱깎이와 1개의 트리머가 있는 방으로 향한다. 어떤 손톱을 먼저 깎을지, 결정한 후 해당 손톱 전용 손톱깎이로 간다. 검지를 먼저 깎기로 했다면, 검지 전용인 <DJC-02>이 부착된 벽으로 향한다. 깎고자 하는 손톱을 흉에 잘 맞춘 후, 반대쪽 팔을 멀리 뻗어 원형의 손잡이를 몸쪽으로 민다. 만약 팔이 손잡이에 닿지 않는다면 파트너를 불러 함께 힘을 맞춘다. 한쪽 손의 손톱을 모두 자른 후엔 반대 손 전용 <DJC-02>로 이동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그렇게 손톱에 맞추어 제작되어 있는 5개의 손톱깎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손톱의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위해 <Trimmer>로 이동한다. <Trimmer>는 2인 1조로 손톱을 다듬는 기계이나, 만약 팔이 길고 힘이 세다면 혼자서 도전해볼 수도 있다. 원하는 높이의 사포에 손톱을 대고 원형 핸들을 돌린다. 회전 방향은 상관없으나 손톱의 안전을 위해 위에서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회전하는 것이 좋다. 10개의 손톱이 모두 매끈해졌다면, 5개의 손톱깎이와 트리머에서 나온 손톱 파편과 가루를 빗자루로 쓸어낸다. 쓸어낸 파편과 가루는 훑날리지 않게 조심하여 휴지통에 버린다. 만약 파트너가 도움을 줬다면 고마움을 전한다.

This is Smart Cutter!

전시장은 5개의 손톱깎이와 1개의 트리머가 놓여 있다. 5개의 손톱깎이는 5개의 손가락에 위치한 5개의 손톱을 하나씩 담당한다. 일반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을 때, 사방 50cm의 면적과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This is Smart Cutter!》의 손톱깎이들은 최소 4m의 사방 면적과 5배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효율과는 거리가 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손톱깎이들이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손톱을 깎아주는 스마트 기계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과도한 근육을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손톱깎이는 ‘굳이’ 만들어졌다.

이 손톱깎이의 생김새는 마치 둔한 몸집의 초기 매킨토시 컴퓨터를 연상시키지만, 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다. 어쩌면 《This is Smart Cutter!》의 손톱깎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수월히 돌아가는 스마트시대의 인간에게 너무 어려운 기계일지도 모른다. 《This is Smart Cutter!》의 손톱깎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자동화에 익숙해진 간편한 기대를 내려놓고, 직접 몸을 구부리고 늘리며 다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정신을 집중하며 (고작) 손톱을 깎는 행위는 스마트시대를 역행하며 인간의 어색해진 감각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인간은 오랜만에 기계보다 똑똑해진다. 뇌는 소화되지 않고, 사용된다.

어쩌면 《This is Smart Cutter!》의 손톱깎이들은 우리가 멍게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손톱깎이이다.

To Avoid Becoming a Sea Squirt

Yeojune Yoon (independent curator)

Sweet Dream

In Jang Na-ra's music video *Sweet Dream*, a so-called toothbrush machine is featured. This amazing machine - which upon appropriate placement of one's face, will squeeze the toothpaste and brush their teeth - remains as a fantasy in the minds of many in their morning beds and evening sofas since the release of Jang's music in 2002. To call it a fantasy may sound like there hasn't been any advancements in toothbrush technology, but innovations to vanquish this three-times-a-day-hassle have been steady, from the electric toothbrush to automatic toothpaste dispensers, and even the smart toothbrush machine that accomplishes the task by simply being bit down on. However, this mouthpiece-shaped smart toothbrush machine, though reportedly able to finish the task in 3 seconds with sterilization and personal preference settings available through a mobile app, made a brief appearance in 2017, never to be seen again. Even for the Smart Era, an automatic toothbrush machine that needs to be charged overnight, with preferences configured on the app, and bit down on for 3 seconds, was too early; well, too smart.

Sea Squirt

According to Actor-Network Theory, machines and humans have coevolved. Humans, as actors, are able to develop technologies, while machines, in turn, may become actors that transform humans. In the Smart Era we are living in today, machines and humans ar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 service of advancement, where humans create machines that are used to automate work for smarter living, while machines provide a smart environment so that humans don't have to unnecessarily expend energy. At the hands of humanity, machines have become smaller in size but larger in effectiveness, and single units are able to perform a wider variety of functions. According to Bernard Stiegler, humans develop machines to be smarter, and to overcome their own natural limitations, by externalizing their memory and functions onto machines. Gradually, through their reliance on machines, they lose their initiative and autonomy. Thus, machines become smarter by the day, while humans increasingly have less of a need to be smart.

Fortunately, humans are not the only ones that regress from smartness. Sea squirts do as well. The sea squirt voluntarily chooses to become stupid. The sea squirt will actively swim to find food, having complex organs including a brain, an olfactory system, muscles, nerves, etc, during adolescence. But as an adult, it attaches its body to a rock, and lives out its days consuming nutrients through the water that enters its mouth. When you have nutrients coming in through the flow of water, there's no need to bear the burden of the intensive caloric output in having a brain. In the name of efficiency, it'll digest its own brain. They seek to satisfy all their needs while being stationary in one place, the adult sea squirts and the humans reliant on machines alike.

(Adv.) Stubbornly, Unnecessarily

'Is that necessar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bears a tinge of embarrassment. There are always reasons, but to be explaining them one by one, it's easy to come off as defensive. Countless smart devices, including the smart toothbrush machine, would have been created based on sound logic: during a busy morning routine, reducing the time spent brushing your teeth to gain 2 minutes and 57 seconds; how much of a compelling reason this is, people who commute to work every day would sympathize. Also, for chic plating, the smart plate that displays appropriate surfaces for various food items surely would've been created by someone who values minimal-life and style. If you are someone who's snipped off a bit of flesh while clipping your nails watching YouTube, perhaps you cried out with joy to discover the smart nail clipper that automatically and safely clips your nails. But wait, is that necessary?

Conversely, there are times when it's awkward to be questioning the necessity of something. When 'obstinace' itself is the goal, and something is done in the face of its unnecessaryness - stubbornly, obstinately - the question is rendered pointless. This is Smart Cutter! proposes, obstinately, nail clippers that are cumbersome, heavy, and barely even solo-operable, in this era of smart nail clippers. The triangular support in the lower portion of PPC-01 has no particular function. It just encumbers the nail clipper. The components of WMC-05, with the exception of the small chopper used to cut fingernails, meaninglessly and obstinately occupies space. It's not even solo-operable. A task normally performed with two fingers is barely made possible through the use of both arms by two individuals. Obstinate creation is the purpose of This is Smart Cutter! Questions become frivolous.

Using the Nail Clipper

The act of nail clipping is performed as follows. Get hold of a flyer sheet and look for the nail clipper in your drawer. If you can't find a flyer sheet, the leaflet from a visit to an exhibition last week will do. Clip the nails on one hand, and repeat the same motions on the opposite hand. Once all 10 nails have been clipped, gather the nail fragments on the piece of paper, and dump them in the garbage bin.

Or, it may proceed as follows. Go to the room with 5 clippers and 1 trimmer. Decide which one of your nails to clip first, then go to the designated clipper for that particular nail. If you've decided to clip the nail on your index finger, approach the wall where DJC-02 (the designated clipper for the index fingernail) is installed. Place the nail you want to clip on the insert, and reach with the other arm to push the round handle towards your body. If you can't reach the handle, bring a partner and work together. Once the nail on one hand is done, move over to DJC-02 designated for the opposite hand, and repeat the process. Once you've used all 5 clippers that are designed specifically for each fingernail, finally, move to the Trimmer to give the edges of your nails a smooth finish. Trimmer is a device that is operated by 2 individuals as a team to trim fingernails, but if you are strong and have long

arms, you could try doing it alone. Place a fingernail on a sander with the right depth and turn the round handle. The direction of the turn doesn't matter but for the safety of your fingernail, it's better to turn it from top to bottom. If all 10 fingernails are smooth, sweep the nail fragments and dust that came out of the 5 clippers and trimmer. Use caution not to get the fragments and dust blown off as you dump them in the bin. If a partner has helped you, express gratitude.

This is Smart Cutter!

In the exhibition space, 5 nail clippers and 1 trimmer are placed. Each of the 5 clippers are designated for each of the 5 fingernails on each of the 5 fingers. While a normal nail clipper requires about 50cm² of space and about 2 minutes of time, the nail clippers of This is Smart Cutter! requires at least 4m² of space and takes over 5 times the duration. Needless to say, these nail clippers are far from efficient, and decidedly inconvenient. At a time where it wouldn't be surprising to see a smart device that automatically clips our nails for us, this nail clipper - which requires excessive use of muscles, unnecessary exertion, and even risk-taking - was 'obstinately' created.

The shape of the 'Smart Cutters' brings to mind the obtuse build of early Macintosh computers, except they're not quite as smart. Perhaps the nail clippers of This is Smart Cutter! are too difficult for humans of the Smart Era, where everything runs smoothly without them lifting a finger. To use the nail clippers of This is Smart Cutter!, one must forgo expectations of convenience induced by automation, and bend and stretch their bodies while taking care to avoid injury. This act of moving the body and focusing the mind so inefficiently, (just to) clip one's fingernails, is a regression from the Smart Era to recall the human senses that have become unwield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 human being is smarter than a machine. The brain, instead of being digested, is utilized.

Perhaps the nail clippers of This is Smart Cutter! prevents us from turning into sea squirts. These are smart (-people-making) nail clippers.